

서평 『그리스도 중심 설교 이렇게 하라』

진리를 알게 해서 진리로 변화되게 하는 설교



브라이언 채플린 저
안정일 역
CUP

“강해설교의 목표는 간단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말하는 것이다. 설교자의 주된 목표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에서 성령이 말씀하는 것과 일치되게끔 하는 것이다.”(16)

“단순히 주석에 적힌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충성된 설교자는 성도가 마땅히 들어야 할 내용과 들을 수준이 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실제적 사실, 교리, 예화, 적용점을 제시하고 목회자의 로고스(성경의 말씀), 파토스(감정), 에토스(성품)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살전 2:2~13).”(18)

“설교가 명료하고, 흥미롭고, 잘 짜여있지 않으면 설교자의 신뢰성이 의심받게 되고 더 나아가 말씀의 진리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설교의 어법과 구조 체계를 터득해 설교 내용이 듣는 이들의 상상을 자극하고 이해와 기억을 증진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설교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정보를 전달하고, 기억에 새겨 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적 진리와 대면시켜 그들의 의지와 뜻이 그리스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성도가 무엇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깨달았는가를 잣대로 설교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설교를 듣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19)

“설교자의 의무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서(inform) 그 진리로 변화되게(transform) 하는 것이다. 그런 의무가 있기에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곧 필요한 진리를 전하는 통로이자 능력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19)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려나게 하는 것이 설교의 주된 목적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34)

“기독교 설교는 시종일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분을 섬길 수 있게 된다.”(40)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설교의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바울의 고백이 입증하고 있다.”(40)

“하나님의 사랑을 가속하는 은혜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경을 구속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궁극적 이유다...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연료를 공급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은혜를 전하는 설교는 구세주의 사랑을 타오르게 한다. 모든 말씀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는 단순히 성경의 전체 주제들로 인해 요구되는 해석적 전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꾸준히 알려주는 노력이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타오르게 한다. 설교자는 성경 전체에 스며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설명해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가득 차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44, 45)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칭송함으로써 그 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때 설교는 기쁨이 된다... 성경에 나오는 명령과 마음의 동기, 은혜의 능력이 합해 줄 때 더 나은 설교가 가능하다. 이런 설교에서 복음의 명령은 사라지지 않는다.”(46)

“복음을 참되게 전하려면 은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은혜에 관해 설교하고 있는가?’”(47)



권경호(權鏡浩) 목사는 부산의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부산 부평교회를 시무했다. 남아공의 노스웨스트 대학교(North West University, 지난 이름 Potchefstroom University)에서 교육철학을 전공하고 교육학 박사(Ph. D) 학위를 받아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쳤다. 고신대학교의 이사를 역임한 후 후배들을 위해 조기 은퇴하여 동 교회 원로 목사로 있다.

목사의 기본적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늘 경험하는 것처럼 참 쉽지 않다. 모든 목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있다. 목사는 ‘메시지가 좋은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고 항상 좋은 설교를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모든 목사가 항상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는 ‘참 설교는 어렵다’는 것과 연륜이 쌓여 질수록 설교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목사는 ‘재직 중에는 늘 오늘은 누가 와서 설교를 좀 해주지 않으려나하고 바라고 은퇴 후에는 오늘은 어디서 설교 청탁이 오지 않으려나하고 기다린다.’는 유머처럼 항상 설교는 쉽지 않고 목사는 늘 설교에 대한 부담을 지낸다. 자칫하면 목사는 연륜이 쌓일수록 다음과 같은 현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설교 기술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사역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나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이 단순한 의식이나 상투적인 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교회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사역하

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방 잘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적절한 교회 성장 비법을 활용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면 교회는 부흥할 거야.' 사실 자신의 목회와 신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날마다 밀려오는 목회의 압박감은 날마다 이런 식의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목회가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역이 아니라 기술을 발휘하는 전문직이 되는 것입니다." (본서의 설교 '어떤 첫 번째 회개자' 중에서) 그래서 저자가 예시한 것처럼 세월이 갈수록 설교 준비가 기계적인 작업처럼 되어서 목사가 망치와 못을 들고 목공 일을 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는 일이 되고 만다. 거기다가 한국 교회 목사들은 설교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도 이런 현상을 부채질 한다.

교훈에만 치중하는 것이다.

목사가 성도들을 보다보면 성도들이 너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실망을 하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대로 때로는 고집센 교인들, 마음대로 사는 교인들을 채찍질하여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열심히 봉사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쉽다. 동시에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는 준비하는데 비교적 쉬운 면이 있다. 성경 연구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설교를 준비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단기적으로 강하게 자극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판된 책 『그리스도 중심 설교 이렇게 하라』는 우리에게 사역의 현장에서 감동적으로 읽고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설교 지침서이다. 이 책은 설교자가 성경 전체

를 그리스도 중심의 맥락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하며,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감격 속에 빠지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저자인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은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교수이자 총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커버넌트 신학대학원 명예총장, 낙스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이며, 미국 일리노이 주 그레이스 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미국 장로교(PCA)에서 여러 가지 국내외 협력 사역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다니며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1999년, 도서출판 은성)",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 "성화의 은혜(조계광 옮김, 2014년, 지평서원)",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2011년, 부흥과 개혁사)",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김진선 옮김, 2014년, 성서유니온)" 등이 있다.

이 책은 오래 전에 출판된 저자의 설교 지침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Christ-Centered Preaching, 1994년에 출판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초판이 1999년 김기재 역으로 도서출판 은성에서 출판되었다.)를 뒤이어 그 원칙에 입각한 설교의 본보기를 실었다. 프롤로그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간략한 요약의 실려 있다.

'1부 설교의 구조'에서는 먼저 책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서 제시했던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는데 유용한 구조적 도구들에 대한 적용 편으로 구조적 도구들을 강조한 설교 예문들을 실었다.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전형적인 구조형태의 강해설교, 핵심 논지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강해설교, 귀납식 강해 설교, 그리고 특별한 날에 하는 주제 설교(제목 설교) 구조의 예를 제시했다.

예시한 설교에는 지침과 참고 서적을 덧붙여서 단계마다 필요한 원칙과 실재를 알 수 있게 해 놓았다. 그래서 독자가 이 원칙을 적용하려고 이 구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려고 시도했다.

‘2부 성경 신학’에서는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본문이 어떻게 예수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고, 예비하고, 반영하고, 그 결과를 들어내는가를 찾아내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탐구한다. 이 설교 예문들을 통해 구속 사역의 필요성과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이 구속적 막힌 길, 혹은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예문들은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해석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부 복음 적용’에 수록된 설교들은 성경에서 발췌한 구속의 진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과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이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설교마다 강조점을 달리해 제시했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말씀의 능력이 가진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면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설교자가 힘든 역경 속에서도 소망과 담대함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격에 빠지게 하는 설교

요즘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설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들게 할 뿐 아니라 여러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에서도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분간하기조차 힘들어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어떤 면에서는 설교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표현하면 설교들이 상품처럼 보고 지나가는 물건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

런 속에서 이 책은 정말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바른 설교인지, 그리고 어떤 설교가 성도들로 하여금 감격 속에 빠지게 만드는지를 가르쳐주는 설교모음이다.

제2부 성경 신학과 제3부 복음 적용 부분의 설교를 읽으면서 정말 저자가 말하는 은혜의 능력, 기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은혜 없는 복종의 삶이 가능하지 않듯이 은혜와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섬기는 사람을 살게 만드는 확신을 더욱 가졌다. 다만 1부의 특별한 날에 하는 설교 “여호와와의 영광” 부분은 조금은 실망스러웠고 여기의 설교들은 저자의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진수들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설교가 이렇게 짜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늘 이렇게 설교하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바쁜 사역 속에 사는 설교자들이 준비하는 일도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적절한 예화 사용

이 설교 예문들은 많은 적절한 예화들을 사용하고 있다.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설교와 예화를 집과 창문으로 비교하면서 좋은 예화는 설교를 더욱 빛나게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적절하지도, 정확하지도, 그리고 감동적이지도 않은 상투적인 예화들이 남발되어 예화가 설교처럼 보이는 오늘, 저자처럼 예화를 사용하려면 설교를 준비하는 만큼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면들에도 불구하고 이 책과 여기에 실린 설교의 예문들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서 진리로 사람을 변화되게 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귀한 지침서임에 틀림없다. 